

## 이탈리아·일본·한국의 루미나리에 비교

(A Comparison of Luminarie in Italy, Japan, Korea)

김현정\*·김찬수\*\*·김정태\*\*\*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아주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Hyun Jeong Kim · Chan Su Kim, Jeong Tai Kim)

### Abstract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루미나리에는 조명이 어두움을 밝히는 원시적인 기능에서 유희적 기능을 제공하는 축제의 의미로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루미나리에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미국, 스페인, 독일, 일본, 한국 등 전 세계에 걸쳐 개최되고 있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루미나리에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와 일본, 한국의 3개 나라를 중심으로 2003년 루미나리아를 각각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루미나리에의 정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개최된 우리나라의 부천루미나리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적 도시이미지구현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오래된 전통을 바탕으로 계획된 이탈리아의 루미나리에나, 시민들을 중심으로 행사금액을 모금하고 민간 주도로 행사가 진행되는 일본의 루미나리에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명축제로서의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 행사홍보의 미흡 및 입장료의 유료화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 이탈리아나 일본의 루미나리에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넓은 조명축제로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 1. 서 론

인공조명의 발달은 조명으로 하여금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원시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인간의 활동시간을 심야로 까지 연장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유희적 기능을 제공하는 축제의 요소로 사용되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다채롭게 열리고 있는 조명축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탈리아를 기원으로 한 루미나리에를 들 수 있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스페인, 일본 등 각국에서 매년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는 루미나리에는 Illuminazione Per Feste (축제를 위한 조명)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빛을 사용해서 만든 건축물로 시작된 루미나리에는 빛이 갖고 있는 정신적 가치와 축제성을 포함함으로써 현재에는 전기조명을 사용한 환상적인 빛의 조각으로서 매년 세계 각국에서 계획되고 있으며 빛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2003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도 루미나리에가 개최되었으며, 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의 축제요소로서의 빛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3 부천루미나리에와

이탈리아, 일본의 2003루미나리에의 사례비교를 통하여 3개국의 루미나리에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빛의 축제로서 루미나리에의 정착과 앞으로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루미나리에의 기원과 현재

#### 2.1 루미나리에의 기원

역사적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최초의 인공조명은 15세기에 출현하였다. 이 시기에 Paratura라는 종교적 장소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이곳을 빛으로 치장하기 시작하였다. Paratura<sup>1)</sup>는 화려한 축제적인 히례허식을 좋아하는 나폴리의 귀족사회와 법률귀족의 호위를 받던 시절과 맞물려 더욱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Lecce와 Apulia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바로크적인 영향력을 크게 받은 선두적인 장인들이 출현함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기법을 타파하게 되면서 이는 장인정신이 깃든 예술로 승화되었다. 'Galleria'는 이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그림1>.

1) 세속적인 신앙 혹은 우상(개인) 숭배의 의미를 표현하는 장식물이 존재하는 장소



그림1. Santa Cesarea boulevard (end '800)

새로운 장인들의 예술적인 디자인과 접목된 빛의 장식들은 1894년 Mariano라는 장인에게 이어서 최초 예술가를 후원해주는 후원회의 발기인들을 위한 축제의식이 행해지는 거리와 광장을 장식하게 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나무 frame으로 지탱된 오일 램프들은 후에 carbide(탄화) 램프들로 대체되었고, 이는 193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전기를 이용한 등화전구들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Open space는 가상의 삼차원적 공간의 분위기를 살리는 수만 개의 미세한 전구들로 치장되었고, 이것은 파고다에서 불빛과 색으로 치장된 매혹적인 화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그림2. Patron Saint festivity - Scorrano(LE) 1953  
이렇게 발전된 조명장식들은 오늘날에 이르러 루미나리에라는 이름의 조명축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53년 스코라노(Scorrano) 지방에서는 종교적 축제와 더불어 루미나리에가 계획되는 등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조명을 이용한 경축행사의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그림2>.

## 2.2 루미나리에의 현재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루미나리에는 이탈리아 전역 및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은 물론, 미국을 거쳐 약 10년 전부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일본에서 설치되었으며, 2003년 한국에서도 개최되어 한여름 밤이나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축제의 밤을 감동의 빛으로 아름답게 밝혀주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된 다양한 구조물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매년 다양하게 계획되고 행사의 취지에 맞

는 다양한 디자인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남는 행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개최도시는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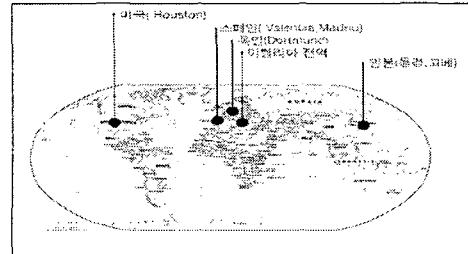


그림3. 루미나리에 개최도시

## 3. 이탈리아 도미니카수도원루미나리에(2003)

### 3.1 이탈리아 루미나리에의 기원 및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루미나리에의 발원지답게 매년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 다양한 조명회사에 의해 수백 개의 루미나리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Mariano Light사에 의해 계획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축제인 이탈리아 남부 스코라노 지방의 Patron Saint festivity는 이탈리아 루미나리에의 대표적인 예이다.

1549년 페란테 곤자가(Ferrante Gonzaga)의 부인인 이자벨라 디 카푸아(Isabella Di Capua)가 여왕주로서 스코라노에 오게 되면서 스코라노 지방에서의 조형물은 아치의 형태나 다양한 라틴 설치물로 시작되게 되었다. 이는 예수회에서 성찬식에 사용하는 휘황찬란한 장식형태를 거쳐 19세기 교권반대를 계기로 장인정신과 맞물려 모든 역사적 폭풍들을 초월한 종교적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의 Lecce주에 위치한 스코라노 지방의 조명축제는 17번째를 맞는 도미니카수도원을 중심으로 도미니카 성녀의 순교를 기념하는 지역축제(303년~2003년)와 함께 계획되고 있으며 Mariano Light사에 의하여 본래의 지역축제의 의미를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 3.2 2003 성 도미니카수도원의 Sentenario

#### 축제에서의 루미나리에의 특성

스코라노 지방에서의 루미나리에는 성 도미니카 수도원의 성녀를 기리는 축제<그림4>와 함께 조명기구를 통하여 수도원을 장식하고 도시의 조형물을 계획함으로써 기존 축제의 종교적 의미와 함께 지역 전체를 통하여 빛의 아름다움을 표현

하는 루미나리에가 개최되고 있다<그림5>.

#### (1) 루미나리에의 일반적인 개요

- 주 제: 도메니카 성녀 순교 1700주년 기념
- 개최 일: 2003년 7월 5일 ~7일
- 개최장소: Lecce주 내 Scorrano 지방 S.Domenica 수도원 주변지역
- 아트디렉터: 루치오 마리아노
- 계획된 전체 길이: 300m
- 최고높이: 23m
- 사용된 램프 수: 약 350.000개
- 총 전력: 1,750.000W
- 이용한 구조적 범: 2,100m의 선형



(a) 낮의 종교행사 모습 그림 (b) 성녀를 기리는 행진 모습  
그림4. 이탈리아 성 도메니카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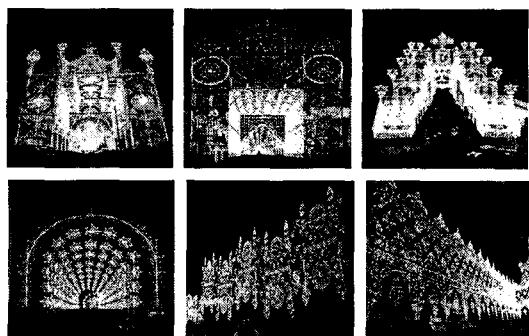


그림5. 이탈리아 성 도메니카 축제의 루미나리에

## 4. 일본 고베루미나리에(2003)

### 4.1 고베루미나리에의 기원 및 현재

고베 루미나리에는 1995년 1월 17일 있었던 고베(神戸) 대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베시의 부흥, 재생의 꿈과 희망을 빌기 위해 그해 12월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 10여 일간 열리는 고베 루미나리에는 일본의 대표적 연말 이벤트로서의 조명 축제가 되었다. 2003년 9회를 맞고 있는 고베 루미나리에는 해를 거듭 할수록 전 세계의 유명 조명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좀더 화려하고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아래의 <표1>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개최된 루미나리에의 행사테마와 입장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1. 매 회의 테마 및 입장자수

	테마	입장자수(명)
1회 (1995)	夢と光(꿈과 빛)	2,542,687
2회 (1996)	讃歎 - 輝けるときを求めて (찬가-빛나는 때를 요구하라)	3,855,665
3회 (1997)	大地の星たちに捧げる (대지의 별들에게 받친다)	4,732,346
4회 (1998)	光の星空(빛의 밤하늘)	5,163,716
5회 (1999)	"Pure" (ピュア) な光の下で (순수한 빛 아래서)	5,157,573
6회 (2000)	光の永遠(インフィニティ) (영원(infinity))	4,737,907
7회 (2001)	光の願い(빛의 소원)	5,190,000
8회 (2002)	光のぬくもり(빛의 온기)	4,640,000
9회 (2003)	光の地平線(빛의 지평선)	4,80,000

### 4.2 2003 고베루미나리에의 특성

#### (1) 루미나리에의 일반적인 개요

- 주 제: 光의 地平線 (빛의 지평선)
- 개최 일: 2003년 12월 12일 ~ 12월 25일
- 개최장소: 고베시 중앙 모토마치구 외국인거주지 히가시유원지(중앙구)
- 아트디렉터: 발레리오페스티
- 작품프로듀서: 今岡 實和

#### (2) 루미나리에의 주요테마의 구성 및 내용

##### ① 테마 1

- 컨셉: 희망의 프레워디오
- 조명위치 및 형태: 三井住友銀行앞의 프론트네
- 구조물의 치수: 높이 21m, 폭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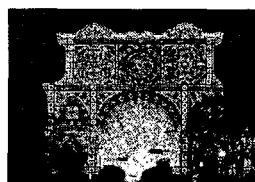


그림6. Facade 정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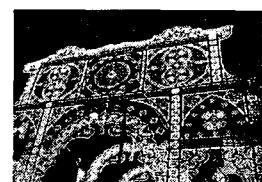


그림7. Facade 정면2

##### ② 테마 2

- 컨셉: "Viaggio nella memoria"(기억의 여행)
- 조명위치 및 형태: 외국인 주거지의 카레리아(빛의 회랑)
- 구조물의 치수: 약 270m의 길이, 총 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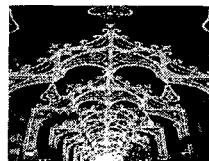


그림8. 빛의 회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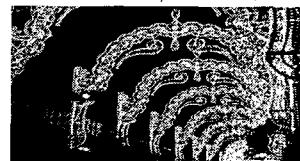


그림9. 빛의 회랑2

### ③ 테마 3

- 컨셉: "Circolo dell'Orizzonte"(연결된 지평선)
- 조명의 형태: 광장의 스파리에라
- 구조물의 치수: 직경 42m, 최고부 22m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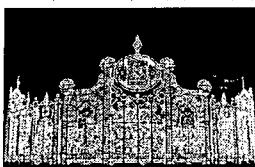


그림10. 스파리에라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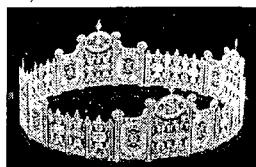


그림11. 스파리에라

### ④ 테마 4

- 컨셉: "Oasi de Luce"(빛의 오아시스)
- 조명 위치 및 형태: 동역지구의 카레리아
- 구조물의 치수: 높이 9m, 폭 4m 11개 & 높이 11m, 폭 7m 3개



그림12. 카레리아 모습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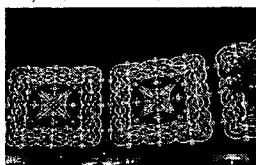


그림13. 카레리아 모습2

### ⑤ 테마 5

- 컨셉: "Miraggi" (신기루)
- 조명의 위치 및 형태: 신주쿠 역의 스파리에라
- 구조물의 치수: 높이 10m, 폭 4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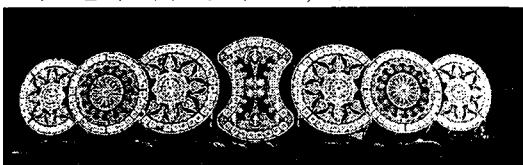


그림14. 7개의 원형으로 구성된 스파리에라

## 5. 한국 부천루미나리에(2003)

### 5.1. 부천루미나리에의 현재

2003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한국의 부천에서 개최된 부천루미나리에는 2003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은 경기도 부천시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빛'을 테마로 대규모 축제를 개최하였다. 2003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상동호수공원 5만 4000여 평에서 열린 루미나리에는 30여개의 대형 건축물과 40여개의 소형건축물을 세우고 이를 34만개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전구로 장식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작품의 구성과 설치는 빛 축제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100여년간 이 축제를 진행해 온 Mariano

Light사에서 맡았으며 다양한 형태구성을 통하여 가을밤의 환상적인 빛 구조체를 연출하였다.

처음 시작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50만명 이상의 입장객 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축제로서 빛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 5.2 2003 부천루미나리에의 특성

#### (1) 루미나리에의 일반적인 개요

- 주 제: 400년 전 르네상스의 빛을 한국에서 만난다
- 부 주 제: '빛, 평화를 향한 꿈'(Luce, Sogno di Pace)
- 개 최 일: 2003년 10월 1일 ~ 10월 20일
- 개최장소: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상동호수공원 (5만 4000여 평)
- 대상건축물: 대형건축물 30여개
- 소형건축물: 20여개
- 제 작: Mariano Light (Italy)
- 프로듀서: 추 성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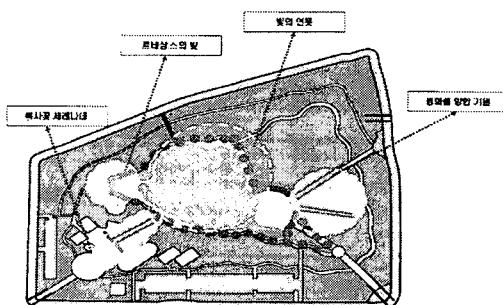


그림15. 루미나리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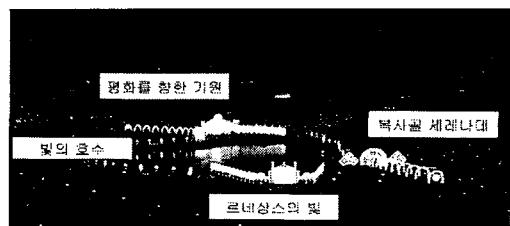


그림16. 루미나리에 전체 모습

부천루미나리에는 <그림14>의 배치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천시의 상동호수공원을 중심으로 4개의 존으로 구역된 지역에 4개의 서로 다른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인 모습은 <그림15>와 같다.

#### (2) 루미나리에의 주요테마의 구성 및 내용

##### ① 테마 1

- 컨셉: 평화를 향한 기원 (메인테마)
- 구조물의 치수: 높이 24m, 폭 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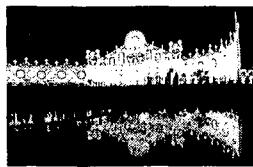


그림17. 호수에 비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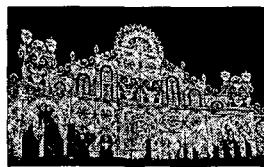


그림18. 메인 Facade부분

## ② 테마 2

- 컨셉: 복사꽃 세레나데
- 구조물의 치수: 길이 85m 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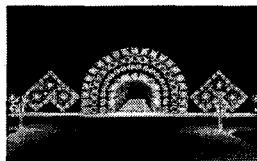


그림19. 3D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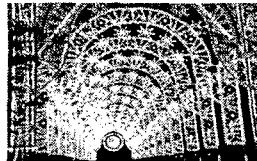


그림20. Spalliera 내부

## ③ 테마 3

- 컨셉: 빛의 연못
- 구조물의 치수: 높이 10m 38개



그림21. 3D계획도



그림22. 빛의 연못모습

## ④ 테마 4

- 컨셉: 르네상스의 빛
- 구조물의 치수: 직경 40m, 높이 16.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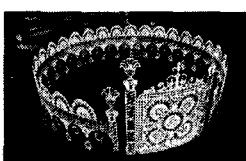


그림23. 3D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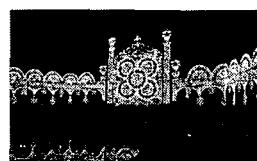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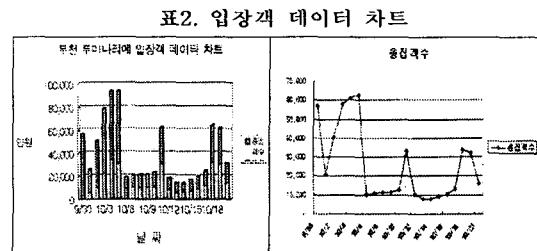


그림24. 원형 Facade 부분

## 5.2.3 부천루미나리에 행사 후 평가

부천 루미나리에는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4개의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테마는 상동호 수공원 전체를 총 34만개의 전구를 사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5,400여 평의 규모에 계획된 부천 루미나리에는 고베루미나리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첫 행사로서의 국제적 홍보의 미흡으로 대부분의 입장객이 내국인이었으나 523,921명의 공식적인 입장객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에서의 조명의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가능케 하였다. 날짜별 입장객 데이터는 아래 <표 2>와 같다.



행사 후 사후평가를 위하여 행사 중 부천시에서는 2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00명의 응답자 중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루미나리에 자체가 지역자체의 이미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52.06%가 문화도시홍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sup>2)</sup> 부천루미나리에의 경우 이탈리아나 고베의 루미나리에가 무료입장인 것과 다르게 1인당 7,000원의 입장료를 걷어 입장료 총수입이 19억 7,500만원에 이르렀으나, 홍보 및 행사 준비 미흡에 의하여 17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루미나리에를 찾은 시민들의 77%가 입장료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견해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축제에서는 입장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수의 창출방법을 통하여 입장료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 6. 이탈리아, 일본, 한국의 루미나리에 비교

우리나라의 부천 루미나리에는 이탈리아나 일본의 루미나리에와 비교하여 볼 때, 그 행사규모면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2배 이상의 규모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행사 기간이 다른 행사에 비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수는 10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표3>.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루미나리에는 초보적 단계에 있으나 이탈리아나 일본의 고베루미나리에처럼 조명축제가 문화적 도시이미지 구현에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지역자체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향상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특별히 해낼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수익창출방법을 고안하고 입장료수준을 현저하게 낮춤으로서 지금의 문제점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이탈리아와 일본의 루미나리에 사례를 바탕으로 더 넓은 조명축제로서 자리 메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변정우, 이충기, "2003루미나리에 방문객설문조사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부천루미나리에 조직위원회, p73-82, 2003

표3. 이탈리아, 일본, 한국의 2003년 미나리에 비교

한국		일본		이탈리아			
개최도시	부천	고베	Lecce주의 Scorrano지방				
행사기간	2003.10.1-10.20 (20일)	2003.12.12 ~ 12.25 (14일)	2003.7.5~7.7(3일)				
행事장소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고베시 중앙 모토마치구 외국인거주자 히가시 유원지(중앙구)	Lecce주 내 Scorrano 지방 S.Domenica 수도원 주변지역				
행사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5만4000여평</li> <li>-최고높이: 24m</li> <li>-대상건축물: 대형건축물(30여개) 소형건축물(40여개)</li> <li>-사용된 램프 수: 34만개</li> <li>-이용한 구조적 범: 8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3만여평</li> <li>-최고높이: 22m</li> <li>-대상건축물: 대형건축물 (20여개) 소형건축물 (25여개)</li> <li>-사용된 램프 수: 20만개 전구</li> <li>-이용한 구조적 범: 270m</li> </ul>			
행사컨셉	400년 전 르네상스의 빛을 한국에서 만난다 [부제: '빛, 평화를 향한 꿈']			빛의 지평선			
개최이유	시 승격 30주년 기념			도메니카 성녀 순교 1700주년 기념			
입장객수	523,921명			고베대지진(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회생자를 추모			
주최	부천시청(관 주도)			도메티카 성녀 순교 1700년 기념 행사와 함께 러미나리에 계획			
입장료	유료			4,800,000명			
	무료(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지역 전체에서 이루어져므로 파악 불가능			
				무료			

## 7. 결 론

인공조명의 발달에 의하여 과거의 원시적 기능에서 벗어나 인간의 활동시간이 심야로 연장되면 서 조명은 축제의 요소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에 매년 세계 각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조명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그중 이탈리아를 기원으로 하고 있는 루미나리에는 조명축제로 좋게 평가받고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의 루미나리에는 루미나리에의 발원지답게 매년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 수백 개가 개최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축제로는 Mariano Light 사에서 계획한 Scorrano의 루미나리에를 들 수 있다. 이는 성 도메니카 축제와 함께 성당 주변을 빛으로 장식함으로써 기존의 축제의 의미를 빛을 통하여 더욱 증가시키면서 이탈리아 남부의 중요한 지역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고베루미나리에는 1995년 고베대지진의 회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계획된 행사로서 처음에는 일회성으로 계획된 축제였으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으로서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행사를 모금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주도의 행사를 계획함으로써 2003년 아홉 번 째의 행사를 맞고 있다. 행사규모는 이탈리아나 한국에 비해 작지만 국내외의 홍보와 행사의 체계적인 준비로 인해 5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을 매년 유치하고 있으며, 고베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의 루미나리에는 2003년에 처음 계획된 것으로 비록 일본의 2배 규모와 일정이 6일 더 길었을에도 불구하고 50만 명의 입장객수를 기록하

였다. 하지만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조명의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가늠케 한 것으로 좋게 평가할 수 있다.

아직 행사홍보의 미흡 및 입장료의 유료화, 행사 종료 후의 설치물 철거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외로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수익창출방법의 고안을 통한 입장료의 무료화, 설치물이 있었던 위치의 완벽한 복원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면 더 넓은 조명 축제로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루미나리에 행사를 통하여 지역자체 및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도시의 중요한 축제로 계속해서 자리 매김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후기

이 논문은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의 일부임

참 고 문 헌

- [1] 배현미, "도시조명의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19권 3호, pp.161~168, 2003.3
  - [2] 부천루미나리에조직위원회, "빛의 축제 루미나리에 행사 종합 결과보고서", 2003
  - [3] 번정우, 이충기, 부천루미나리에조직위원회 "2003루미나리에 방문객 설문조사 및 경제적 효과 분석", 2003
  - [4] 정강화, "디자인으로 보는 세상-빛축제를 활성화 하자",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144호 2004. 6. 1
  - [5] <http://www.luminarie.or.kr>
  - [6] <http://www.kobe-luminarie.jp>
  - [7] <http://www.marianolight.it>
  - [8] <http://www.marianoluminarie.com>
  - [9] <http://www.santadomenica.it>